LEVES

LIQUIDITY · ECONOMY · VALUATION · EARNINGS · SENTIMENT

| 주식시장의 이해

BNK 투자증권

매크로/투자전략 **김성노** / 02.3215.7568 / ksn0909@bnkfn.co.kr

Contents

주식시장의 이해(LEVES)

Liquidity | 4

Economy | 9

Valuation | 18

Earnings | 20

Sentiment | 22

Summary: 반도체와 유동성이 주가상승을 주도, 향후 통화정책이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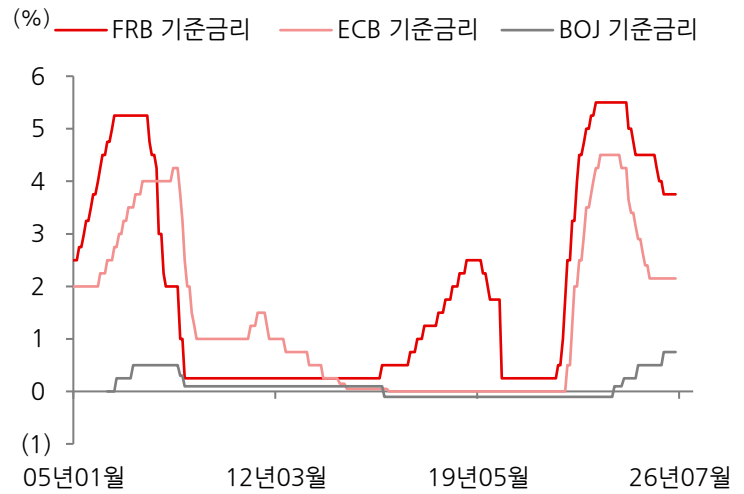
실적, 유동성 vs.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

-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월 유로존, 일본의 금리인상 확률이 80%까지 상승했는데,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시중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시장은 ETF를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가파른 주가상승으로 인해 채권수요가 위축되면서 국채수익률이 급등하고, 주요국의 배당수익률이 역사적 최저치로 하락했다.
- 이란전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2022년 러-우 전쟁 수준에 근접했다. 4월부터 미국 실질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유로존의 경제지표는 2022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위축됐다. 현재 국제유가가 당장 세계경제에 큰 위협요인은 아니나, 종전이 되더라도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 등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다.
- 1Q26 반도체를 중심으로 earnings surprise가 발생하면서 KOSPI 12MF EPS 상향 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 KOSPI 12MF PER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시장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나, 12MF PBR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주식시장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earnings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글로벌 12MF PER은 +1σ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다.
- 주요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유동성 축소와 OECD 경기선행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유동성 확대와 경기회복 기대감을 조성한 것과는 정반대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수출입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주가상승국면에서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반도체로의 쏠림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는 반도체 주가에 KOSPI가 연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Liquidity 1: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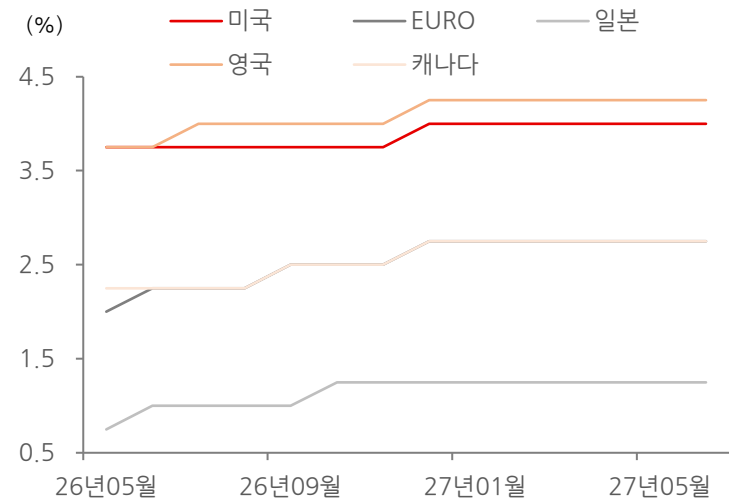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둔화와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인해 미국, 유로존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국면에 진입. 금리인하로 인해 뚜렷한 실물경기회복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금리인하로 인한 주가상승,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확대 등이 경기선행지수에 긍정적
- 2026년 이란전쟁을 계기로 주요국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원유,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로존과 영국, 일본, 한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2024년부터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



자료: 각국 중앙은행, BNK투자증권

2026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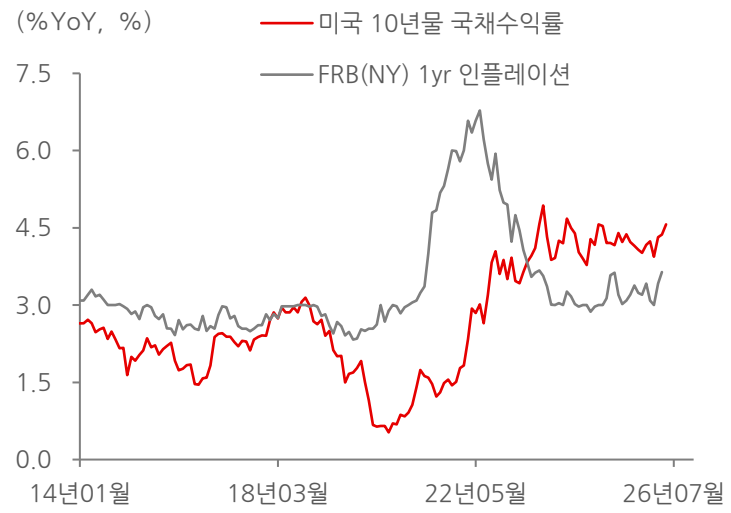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금리인상은 유동성에 부정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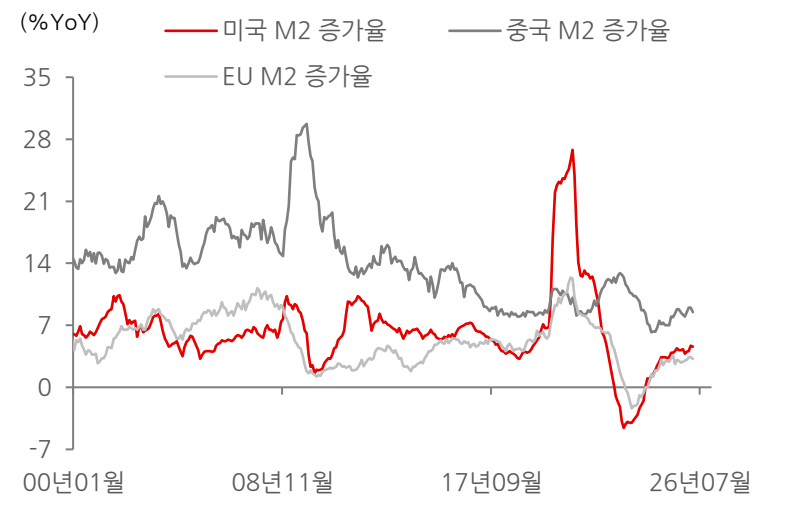
- 2026년 이란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3.64%까지 상승하면서 국채수익률 상승을 유도 중.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에서 국채수익률이 일제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요국은 일제히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함
- 금리인상은 국채수익률 상승과 함께 시중 유동성 감소로 이어짐. 2022년 상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존이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2023년부터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 2024년 하반기부터 시중 유동성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2026년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재차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미국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수익률



자료: FRB, Bloomberg, BNK투자증권

금리인상시 유동성 증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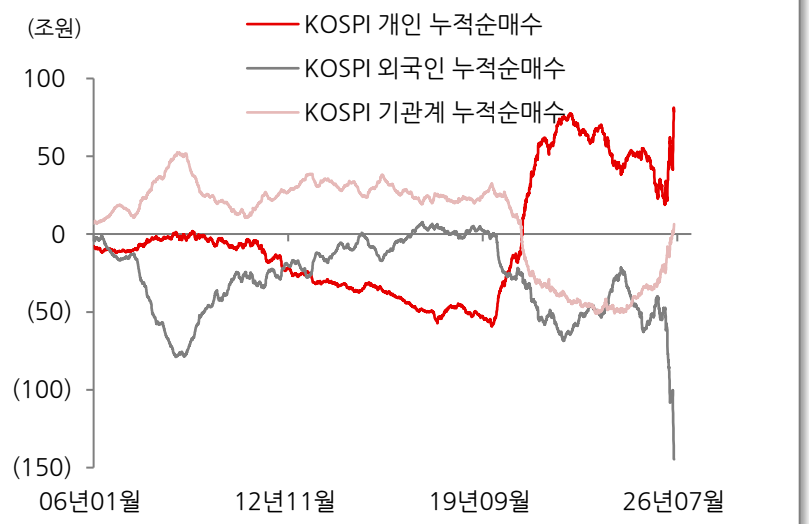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BNK투자증권

Liquidity 2: 자금시장_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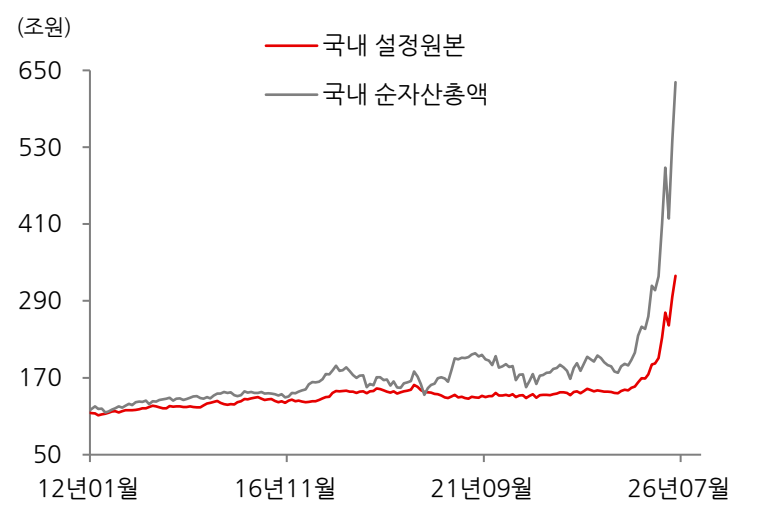
- 통화정책이 시중 유동성을 결정하는 변수인 반면에 자금시장 흐름은 특정자산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 과거 한국시장은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면서 외국인 매매동향이 KOSPI를 좌우하는 경향이 우세
- 그러나 2025년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관, 개인들의 주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내 투자자의 매입여력 확대와 가파른 주가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은 이익실현에 집중하면서 매도세력으로 전환
- 최근 1년간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배로 급증했으며, 주가상승으로 인해 순자산가치는(NAV)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 정부정책이 주식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최근 흐름은 ETF를 중심으로 단기매매가 빈번하게 발생

2025년부터 국내투자자의 주식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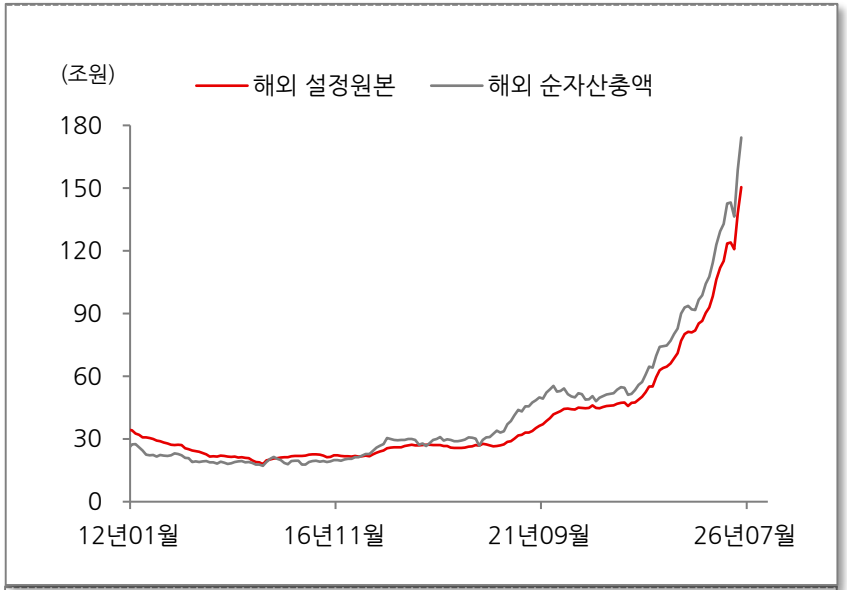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KRX,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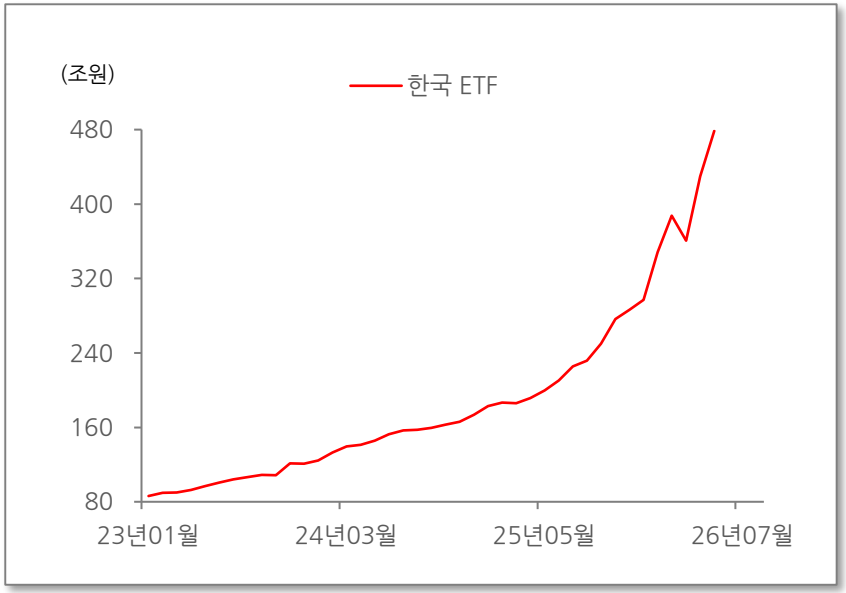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주식형펀드 설정액 2배, 순자산가치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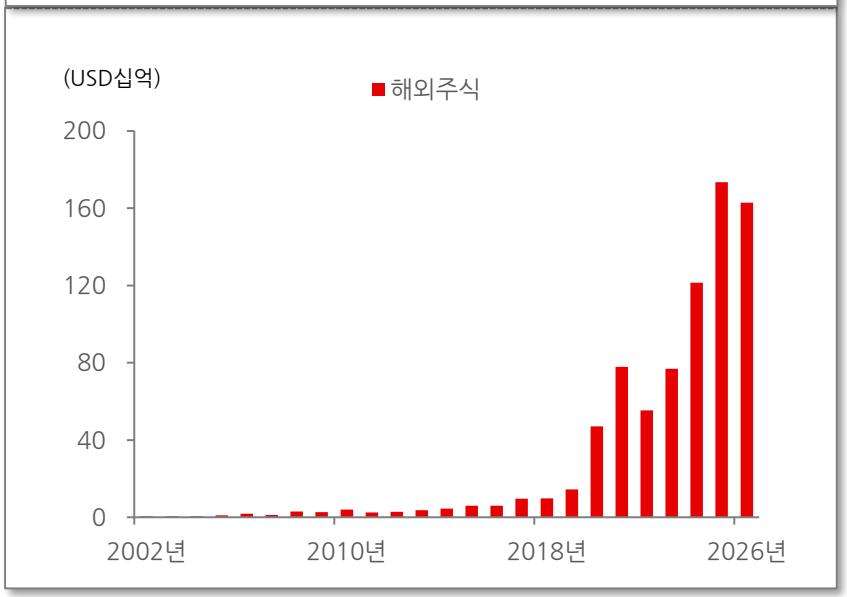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 2024년부터 기업가치제고에 대한 관심과 정부정책 기대감으로 ETF 시장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함. 2025년 하반기부터 ETF 설정잔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수요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 ETF 시장확대가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한국 주가상승률이 압도적인 세계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속도조절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 주식형펀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RIA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과 국내 주식시장의 압도적인 주가상승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감소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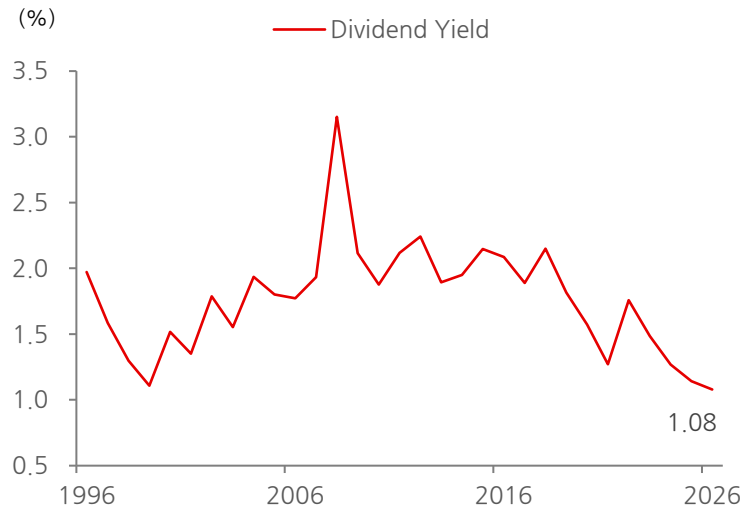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KSD, BNK투자증권

주가상승으로 배당수익률은 사상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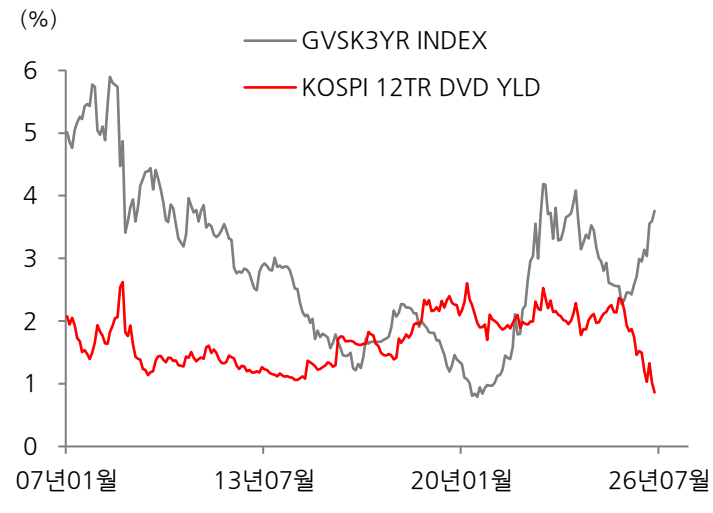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업실적 개선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자금시장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음 →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이 2007년, 2022년 최고치에 근접 중
- 주가상승으로 인해 S&P500 배당수익률은 trailing 1.08%, 12MF 1.16%를 기록하면서 1999년말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 한국 배당수익률은 trailing 0.86%, 12MF 1.21%로 하락하면서 최저치로 하락
- 주가상승률이 높았던 대만 12MF 배당수익률은 2.04%로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일본 12MF 배당수익률도 1.46%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 → 반도체 특수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상승이 배당수익률 하락으로 연결

S&P500 배당수익률 사상 최저로 하락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한국 배당수익률도 사상 최저, 국채수익률은 가파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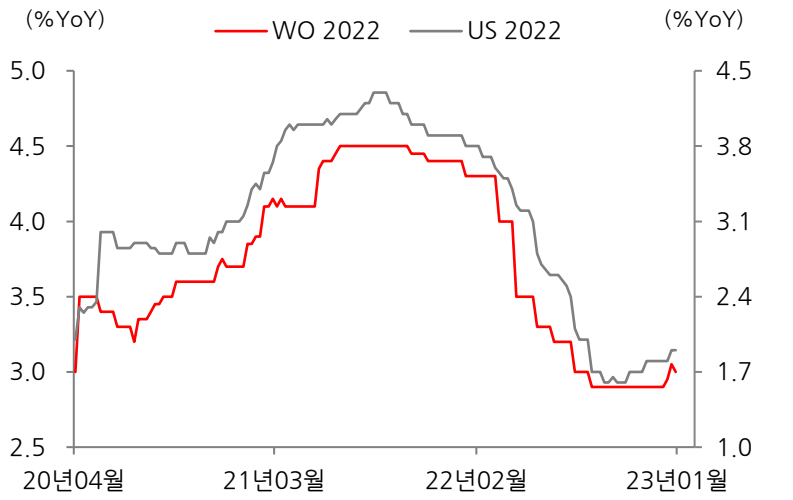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Economy: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진행

2022년, 2026년 전쟁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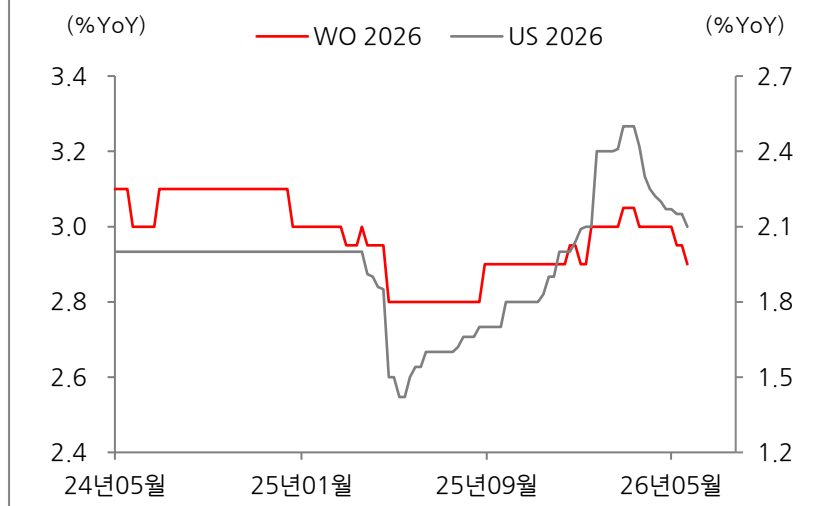
- 2026년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미국 소비자물가 9.1%YoY까지 급등)
-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YoY에서 2.9%YoY까지 하향, 미국 경제성장률도 3.8%YoY에서 1.6%YoY까지 하향 조정된 바가 있음.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는 Pandemic 이후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2022년 미국 비농업취업자수 452.6만 명 증가) → 현재는 고용 정체 상태

2022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경제성장률 급락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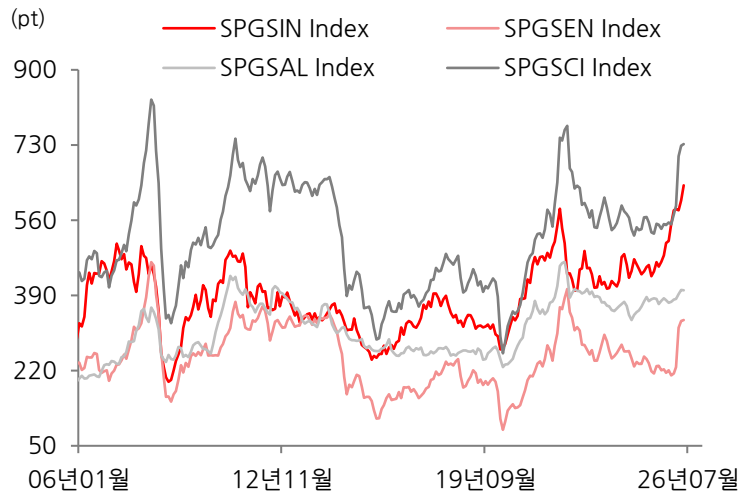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물가불안이 경제성장률 하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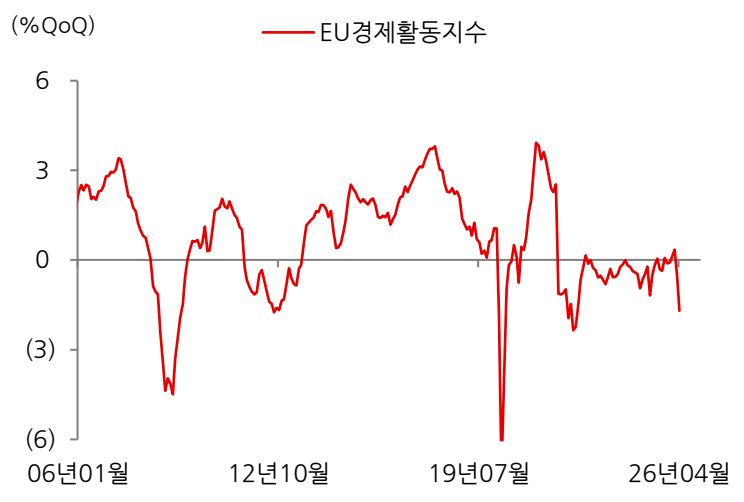
- 3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1Q26 미국,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 → 미국, 유로존을 중심으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 특히 유로존 경제활동지수가(기업, 소비자신뢰지수)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22년 러-우 전쟁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유로존 경제활동지수도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급락
- 이란전쟁이 종료되더라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안정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

러-우 전쟁 수준까지 상승한 원자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러-우 전쟁 수준까지 하락한 유로존 경제활동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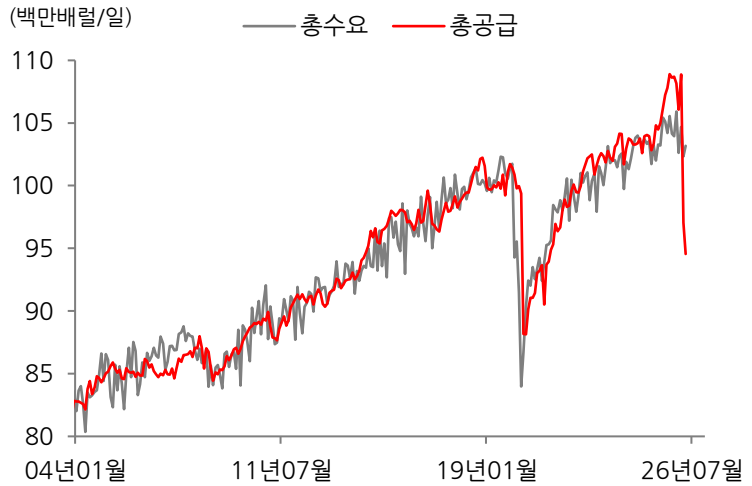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BNK투자증권

원유시장은 공급망이 변수, 장기적으로는 공급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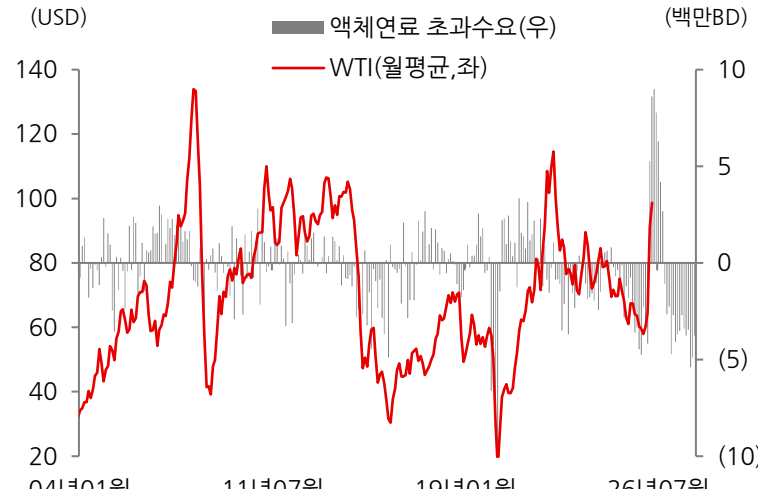
- 원유시장은 2025년부터 OPEC을 중심으로 산유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241만 배럴/일 초과공급 상태를 유지해 옴. OPEC 증산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원유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한 상태로 초과 공급상태가 유지됨
- 그러나 이란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4월에 걸쳐서 1,315만 배럴/일 공급감소가 진행(공급 12.1% 급감). 원유시장은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곡선으로 인해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
- 원유,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 이란전쟁이 종료되더라도 공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4분기에나 공급 정상화를 예상

Pandemic을 넘어서는 공급충격이 발생한 원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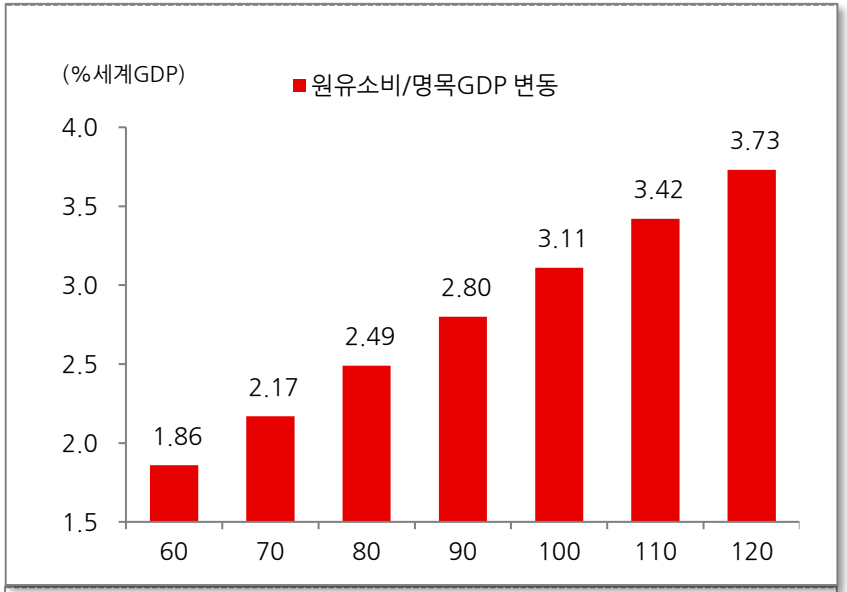
자료: EIA,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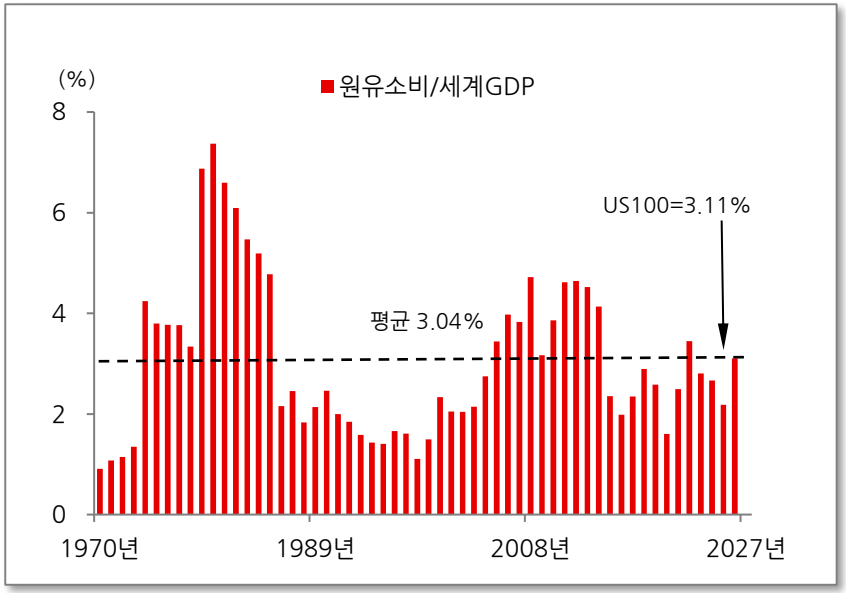
공급차질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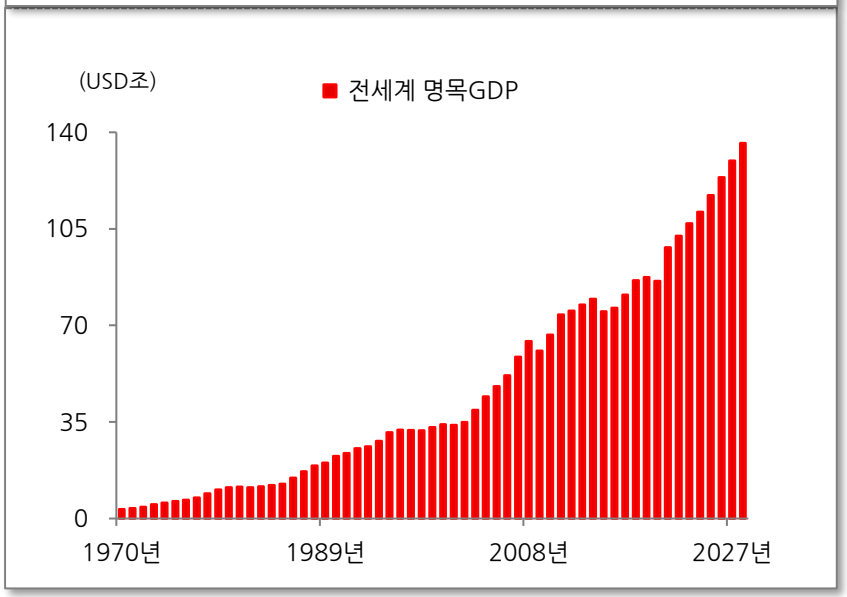
자료: EIA, BNK투자증권

- 2026년 3월부터 평균 유가가 USD100에서 등락과정을 반복하는 상황.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세계 명목GDP대비 원유소비비중은 3.11%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인 3.04%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세계GDP대비 원유소비비중이 3.04%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고유가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2026년 평균 유가가 USD100 전후에서 형성될 경우 고유가로 이해할 수 있음
- 2015년 이후 국제유가는 USD60~80에서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현재 유가수준이 부담스런 상황. 그러나 2015년 이후 세계명목GDP가 CAGR4.6% 증가하면서 유가부담은 완화되는 추세





자료: EIA, IMF,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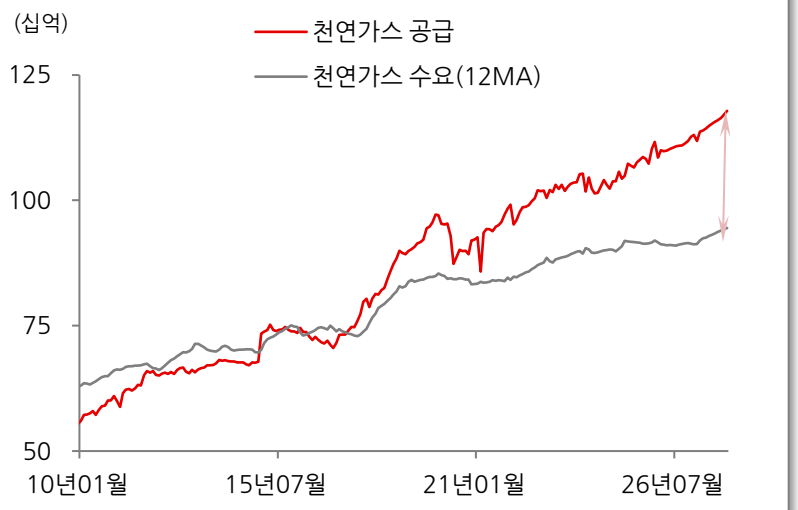


자료: EIA, IMF, BNK투자증권

천연가스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지역별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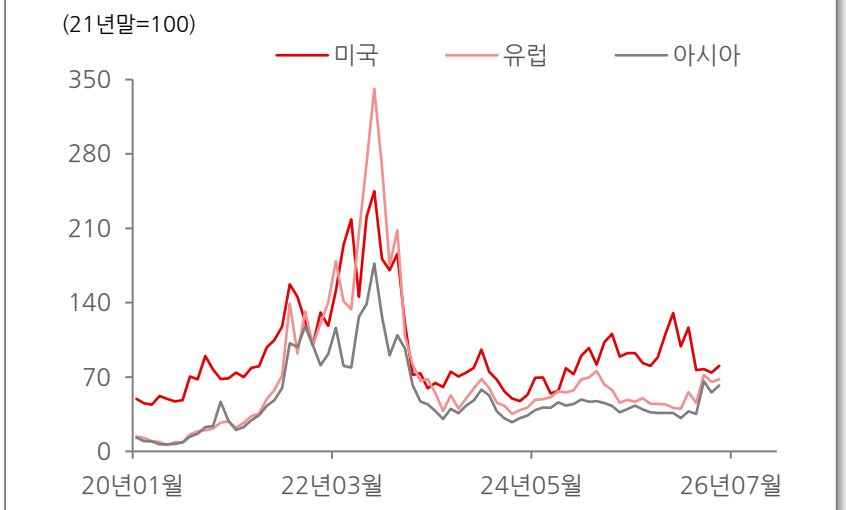
- 이란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향이 없었던 북미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EIA 전망에 따르면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서 초과 공급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6~27년 천연가스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증가가 지속되면서 초과 공급상태가 유지될 전망. 다만 이란전쟁으로 인한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 차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북미지역의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이란전쟁으로 공급차질이 현실화되면서 70% 가까이 단기 급등, 아시아지역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00% 가까이 상승한 이후 조정국면

천연가스는 장기적으로 공급증가가 진행 중



자료: EIA, Bloomberg, BNK투자증권

지역별로 차별화가 진행 중인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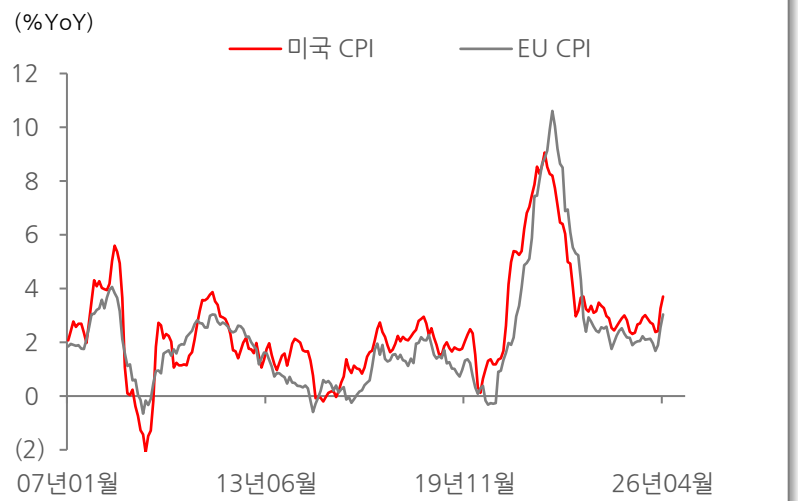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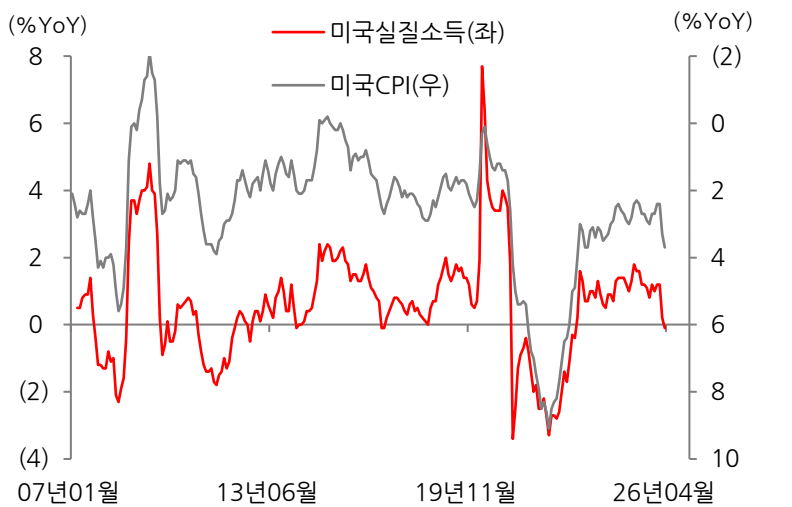
- 4월 원유, 천연가스 가격 영향으로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3.0%YoY로 상승. ECB는 2026년 소비자물가 전망을 1.9%YoY에서 2.6%YoY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
- 미국은 가솔린 가격이 USD4.5까지 상승하면서 5월까지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4월 소비자물가가 3.8%YoY까지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진입. 2022년에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비농업취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감소를 상쇄시킴. 그러나 2025년부터 고용시장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어 물가상승이 소비에는 부정적

이란전쟁으로 미국,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



자료: 미노동통계국, Eurostat, BNK투자증권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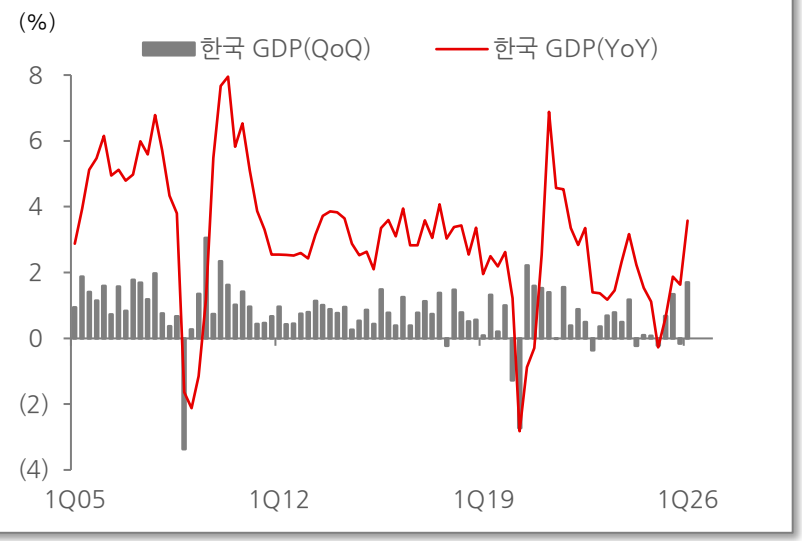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부, BNK투자증권

한국 경제성장률은 반도체에 의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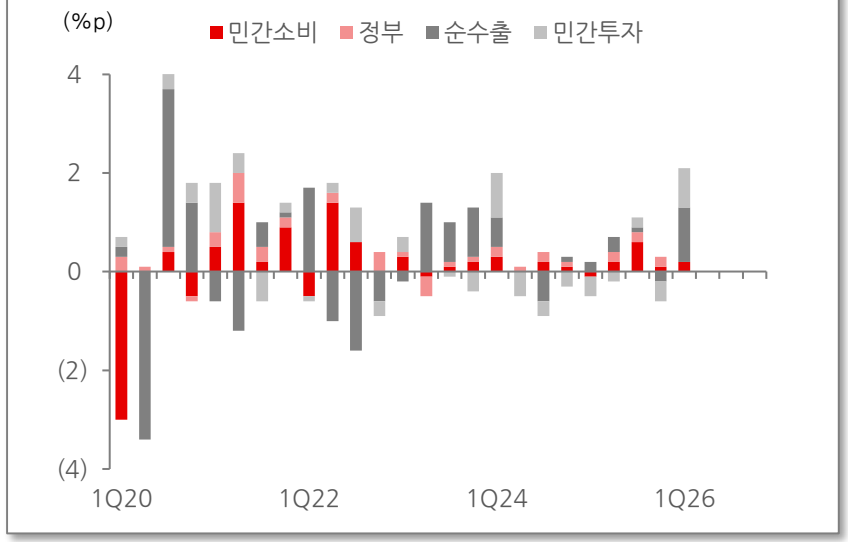
- 1Q26 한국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7%QoQ, 3.6%YoY를 기록함. 2Q26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5%YoY로 상향 조정(기존 2.0%YoY)
- 1Q26 한국 경제성장률 개선은 순수출 기여도 1.1%p, 민간투자 기여도 0.8%p 개선에 따른 결과임. 순수출과 민간투자 증가는 반도체 호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설투자가 반등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 분기별로 보면 이란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로 인해 1Q26을 정점으로 한 상고하저 경제성장률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2026년 경제성장률 2.5%YoY로 상향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반도체가(순수출, 민간투자) 경제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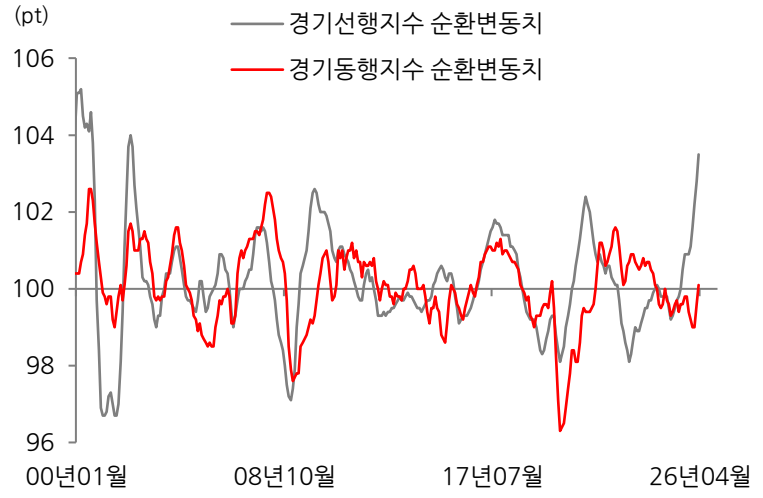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드디어 저점을 확인한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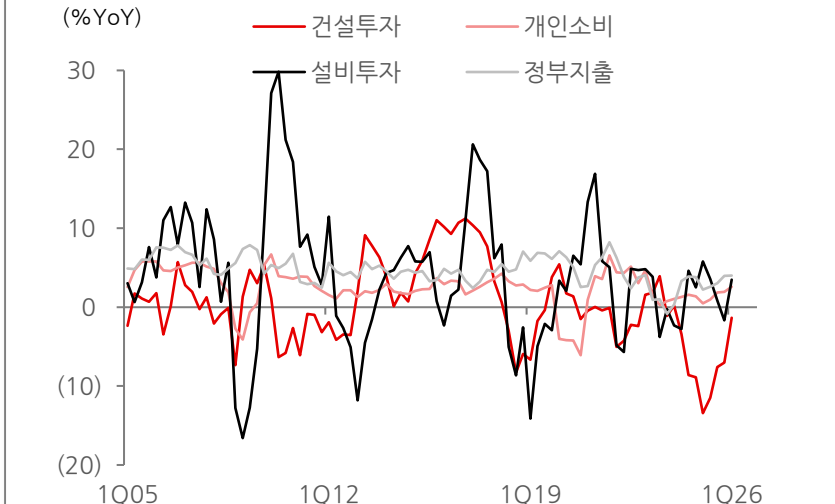
- 2026년 2월부터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 경기선행지수는 KOSPI,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유지 중
- 경기동행지수 반등에는 소매판매액, 수입액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기성액 감소가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이 원인. 경기선행지수가 3년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경기동행지수 부진은 건설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
- KOSPI, 수출입물가지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기선행지수에 긍정적이나,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중 → 향후에도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엇박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마침내 회복세로 전환한 경기동행지수



자료: 통계청, BNK투자증권

설비투자 증가 속에 건설투자 회복 기대감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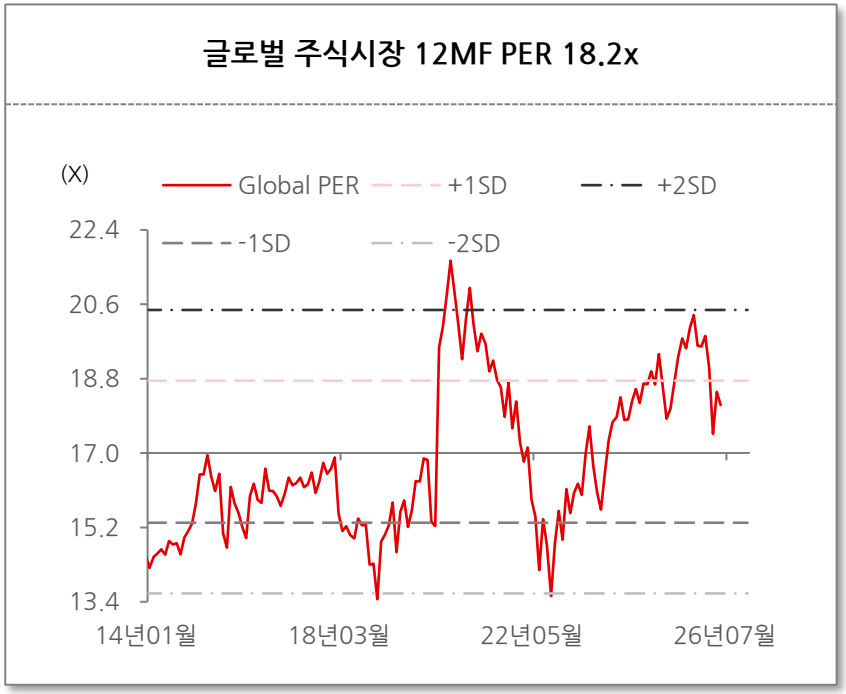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Valuation: 실적, 유동성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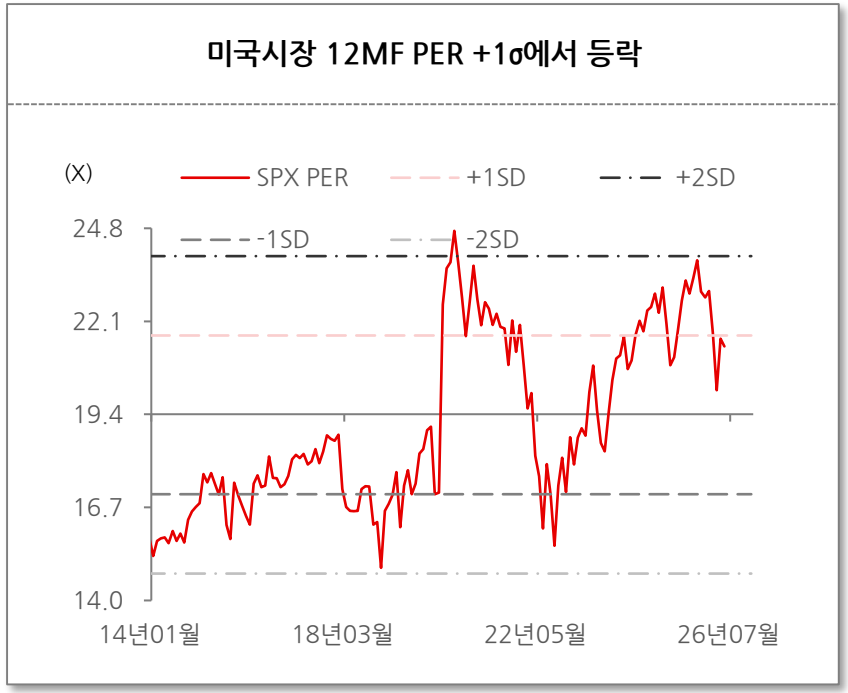
- 2014년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12MF PER은 평균 17.0x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트럼프 1기부터 법인세 인하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의 12MF PER이 평균 19.4x까지 상승했기 때문
- 2020년 Pandemic에 따른 일시적인 기업실적 악화에도 제로금리에 따른 유동성 개선으로 글로벌 12MF PER이 21.0x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12MF PER이 13.5x까지 하락하기도 함
- 12MF PER multiple은 일반적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유동성 유입이 동반되면서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금리인상이나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낮아지는 패턴을 반복

글로벌 주식시장 12MF PER 18.2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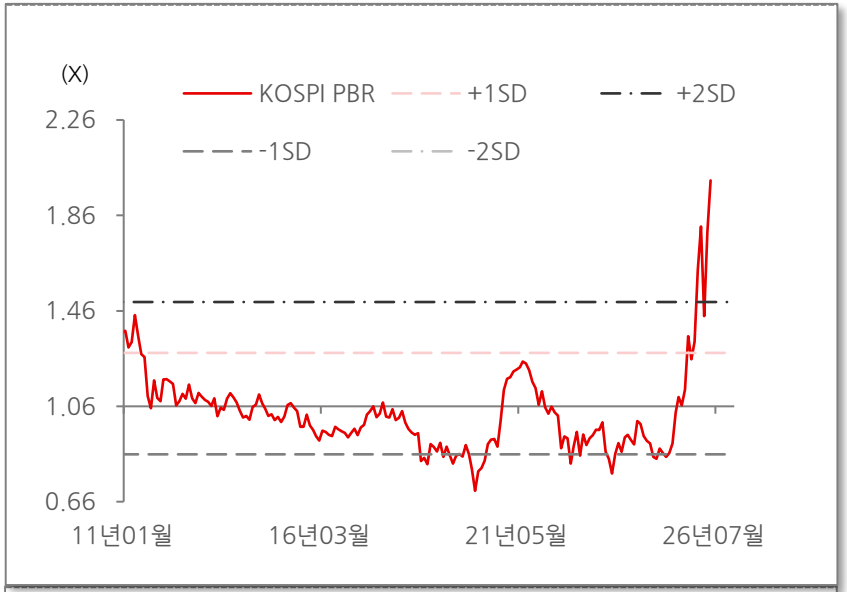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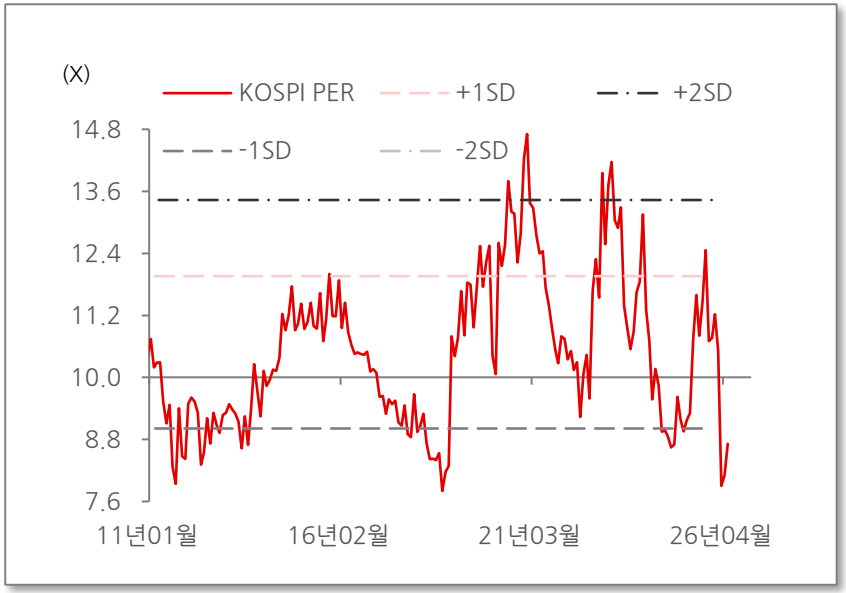
미국시장 12MF PER +1σ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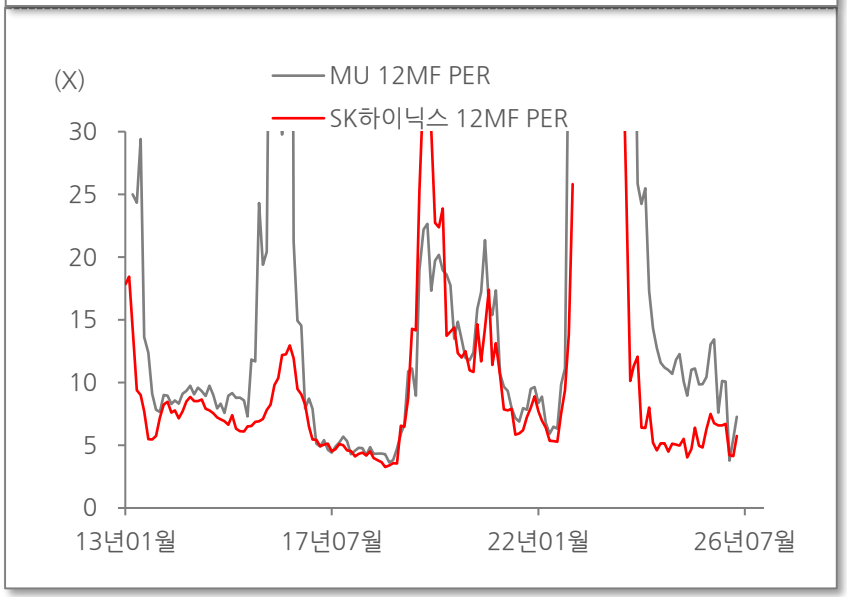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 KOSPI 12MF PER은 역사적 평균 10.0x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저평가 상태를 유지 중. 그러나 KOSPI 12MF PBR 2.0x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
- 한국시장의 낮은 PER과 높은 PBR은 반도체산업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음. 반도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1Q26 SK하이닉스 71.5%) 폭발적인 기업 실적 개선이 진행 중
- 반도체 PBR은 5.6x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00년 IT버블 당시 3.1x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낮은 PER이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 요인이라면 높은 PBR은 외국인 매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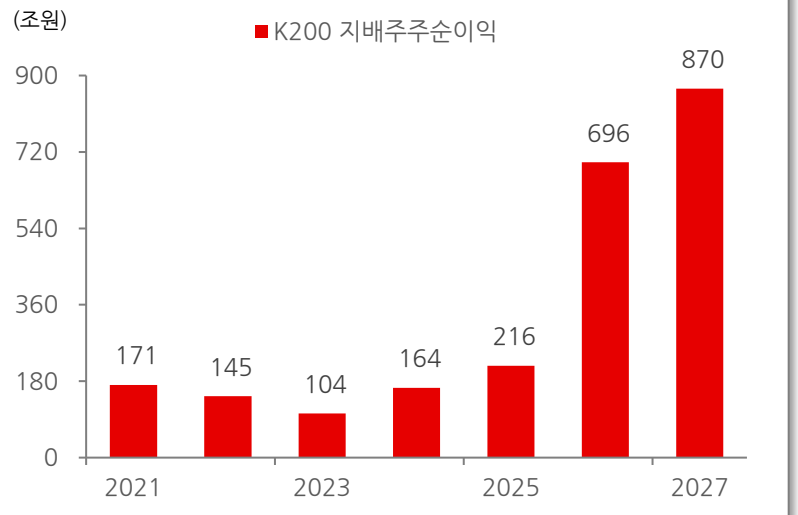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Earnings: 반도체 특수에 따른 실적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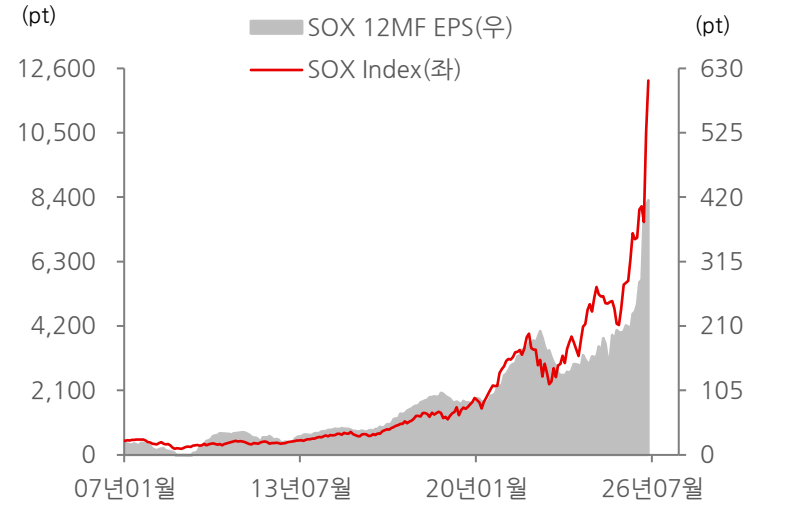
- 2026년 KOSPI200 지배주주순이익은 696조원으로(225%YoY) 증가할 전망. 2026년 폭발적인 실적개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KOSPI200 전체 순이익의 71.6%를 차지할 전망
-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증권과 방산, 조선, 전력기기 등의 업종에서 실적개선이 진행 중이나, 향후 분기별 실적은 1Q26과 거의 동일한 영업이익을 유지할 전망 → 추가적인 실적개선도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시장도 3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발표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실적전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미국 반도체시장은 주가와 실적전망의 괴리가 확대 중(12MF PER 29.4x, 역사적 평균은 20.3x)

2026년 한국 실적개선은 반도체에 의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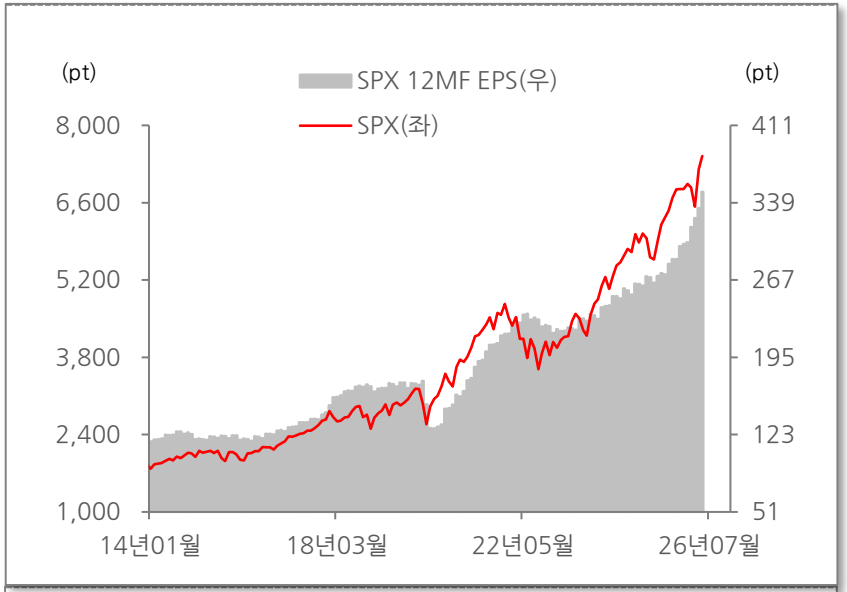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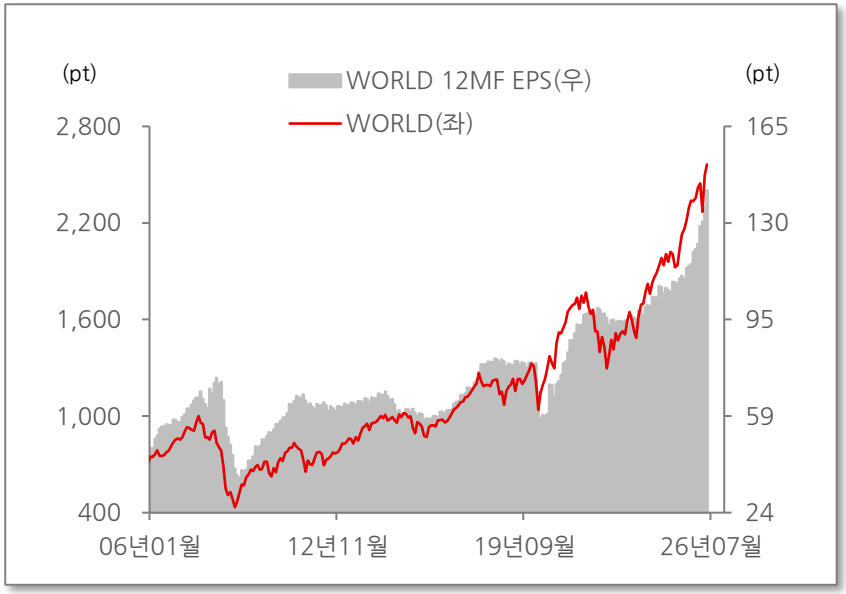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실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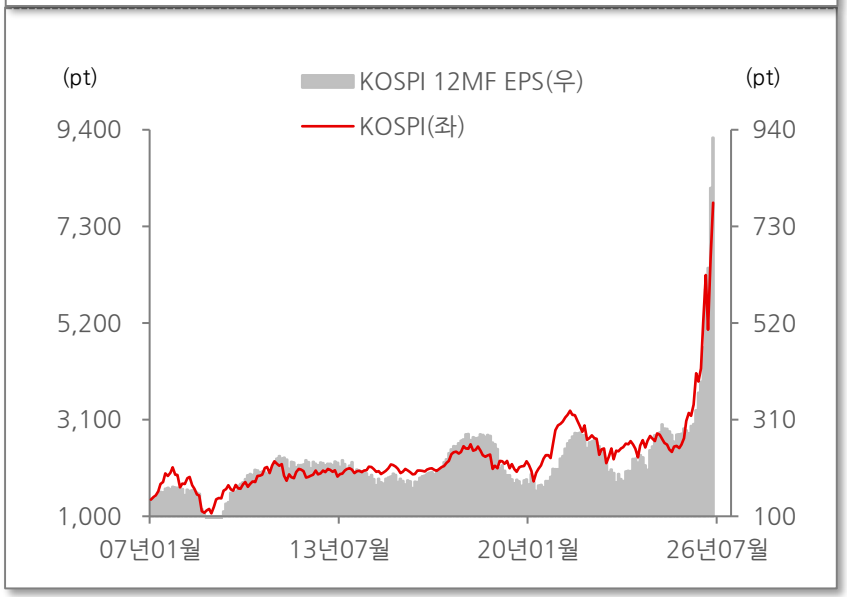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12MF EPS는(향후 12개월 실적전망)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실적전망 상향 조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미국 S&P500 12MF EPS도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실적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AI투자확대에 따른 실적개선
- KOSPI 12MF EPS는 2025년 중순까지 300pt에 불과했으나, 반도체 특수로 인해 900pt를 넘어선 상황. 2026년 순이익 225%YoY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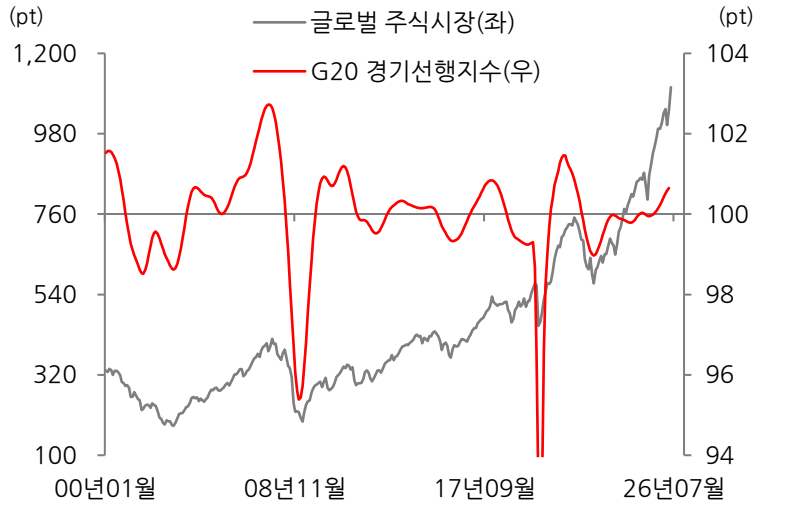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Sentiment: 주가상승국면에서 변동성 확대는 이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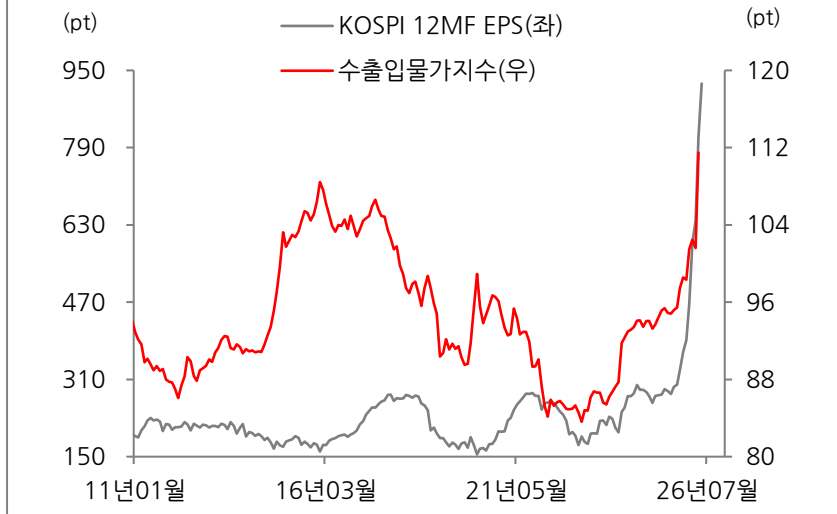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세계경기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 일반적으로 경기선행지수 상승하는 국면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주가는 공통으로 반영
- 수출입물가지수는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변수,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업실적 개선. 최근 반도체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입물가지수 개선이 한국 기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
- Sentiment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시장 동향(달러강세, 달러약세), Economic surprise index, Earnings surprise index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

OECD 경기선행지수와 글로벌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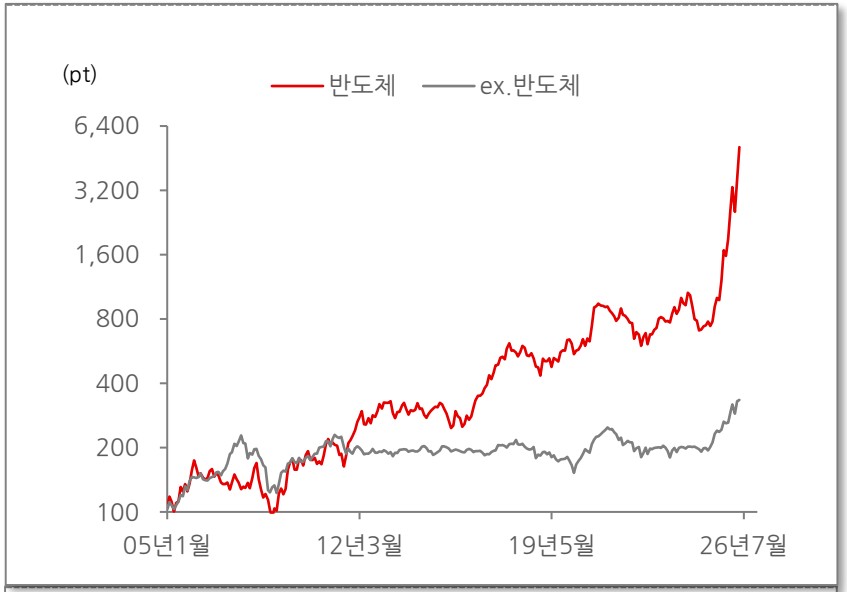
자료: OECD,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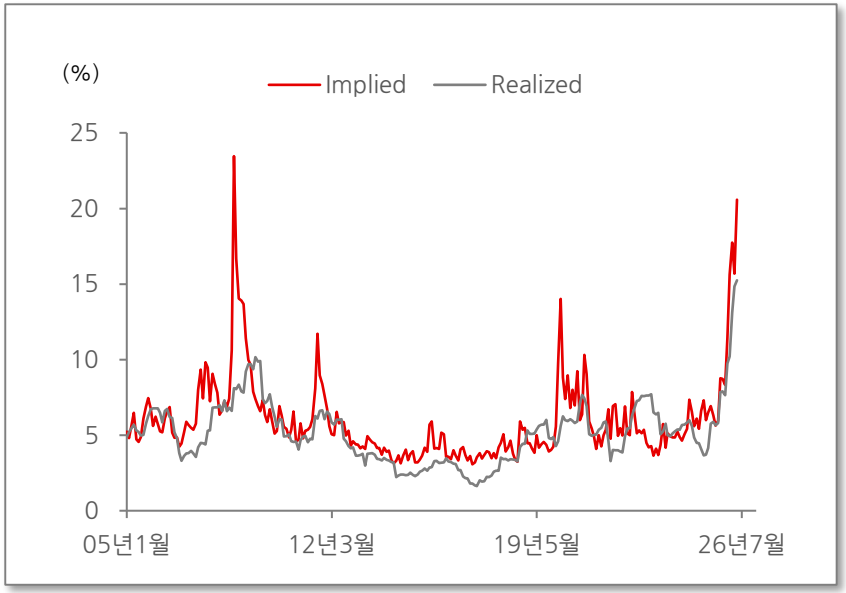
수출입물가지수와 KOSPI 12MF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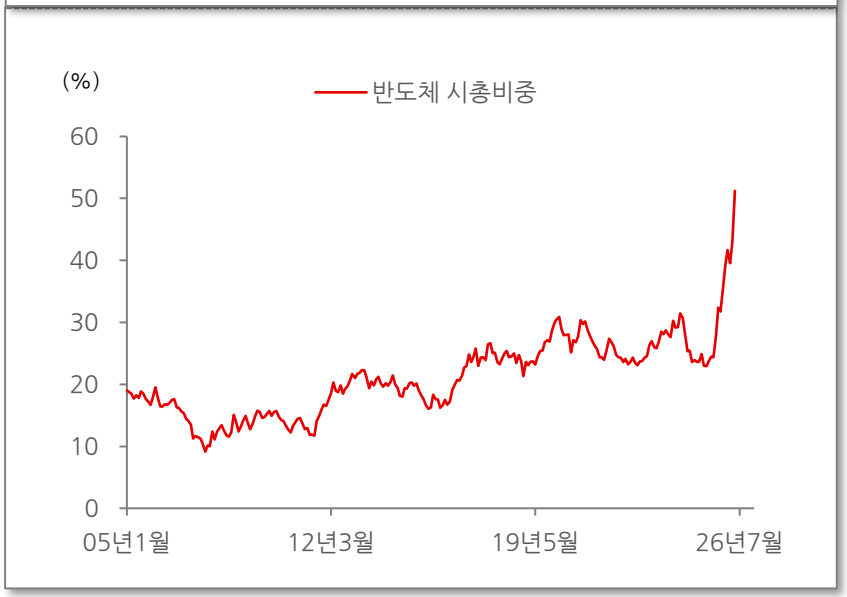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 KOSPI200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상황. 과거 금융위기나 Pandemic과 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는 가파른 주가상승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
- 변동성 확대는 반도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반도체와 그 외 업종의 수익률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KOSPI200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어서기 시작
- 물론 2026년 KOSPI200에서 반도체 지배주주순이익이 71.6%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과도한 것은 아님. 다만 역사적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BNK 투자증권

투자등급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5.06.30 기준) / 매수(Buy) 80.0%, 보유(Hold) 20.0%,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동) 56, 한화손해보험 10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71-6117 / **F** 052-271-6111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 BNK자산운용 / BNK신용정보 / BNK시스템 / BNK벤처투자